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11일(목)

윤석열 대통령, NATO 퍼블릭 포럼 참석

-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NATO 퍼블릭 포럼 최초 참석 -
- 미국 · NATO 회원국 국민 대상으로 한-NATO 파트너십
심화 · 발전에 대한 의지 · 노력 천명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11, 목) 오후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미국 및 NATO 회원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와 NATO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NATO 퍼블릭 포럼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NATO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 하에 정상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계, 언론계,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 토론, 대담, 연설 등 방식으로 NATO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하는 NATO 사무국과 미국 · 유럽 싱크탱크들*의 공동 초청을 받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했으며, 우리 정상이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 행사 주관 기관: (美) 허드슨연구소, 애틀란틱카운슬, 신미국안보센터(CNAS), 독일
마샬펀드(GMF) / (유럽) GLOBSEC
- 7.10(수)-11(목)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및
전 세계 안보 영향,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협 대응,
파괴적 신기술 및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주제로 개최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가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어진 케네스 와인스타인 前 허드슨연구소 소장과의 대담에서는 러북 관계, 중국, 공급망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태지역 핵심파트너로서 NATO와 파트너십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노력을 미국 및 NATO 회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